

<2021년 9월 19일 주일말씀>

- ▶ 정조은 원고 : 선생님께서 전 세계에 보내 주라 하셔서 보냅니다.
전 세계 교역자들, 신학생들은 특히 참고하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육적인 모순>을 잘라야 <자신의 크고 아름다움>을 나타내 기쁘게 한다

본 문 영적으로 해야 온전하게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한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 마음을 거스르나니
<성령의 생각과 감동>으로 하여라.

자기 모순을 제거해야,
아름답고 큰 자임을 인정하며 알게 된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인사 후, <주제 발표>와 <성령님 말씀>

- <오늘 주제>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알죠? <주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막1> 누구든지 <자기 육적인 모순>을 잘라야
<자신의 크고 아름다움>을 나타내 기쁘게 한다.**

* 그러면 <성령님께서 선생님을 통해 하신 말씀>을 -
앞에 <시대 성경과 성경 봉독 시간>을 통해서 들었지만,
지금 한 번 더 정리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영상1>

- <영적>으로 해야 ‘영의 세계’가 제대로 보이고 들리며,
<육의 세계의 것>도 제대로 알게 된다.

- 또한 <하나님과 성령님>도 ‘영’ 이시니,
<영적>으로 해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잘 통하게 되어
<그동안 잘 몰랐던 것>을 깨닫도록
말씀해 주시고, 보여 주시고, 듣게 해 주신다.

- <영적>으로 하지 않고 <육적>으로 하면,
<하나님과 성령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자>가 된다.

- <영적>으로 해야 ‘육의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도
제대로 보여 주고 듣게 하고 알게 해 준다. <끝>

- 아직은 어떤 말씀을 할지, 모르겠지요?
오늘 말씀은 깊지만, 쉽습니다.

- <먼저 성령님이 해 주신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 ‘영적’으로 해야!! - 그러면?

- 첫째, <영의 세계>가 보이고 들린다.

- 둘째, <육의 세계의 것>도 제대로 알게 된다.

- 셋째, <하나님과 성령님>과 잘 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 <그동안 몰랐던 것>을 깨닫도록
말씀해 주시고 보여 주시고 듣게 해 주신다.

<첫 번째 말씀>

-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말씀>**
왜 ‘영적’ 으로 해야 될까?

왜 그런지 알아야, ‘동기부여’ 가 돼서
<해야겠다는 마음>도 생기고 <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 먼저,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육의 몸>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가지>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도표> <육의 몸=육체>, <혼의 몸=혼체>, <영의 몸=영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육>이 태어나면서, <혼과 영>도 존재하게 됨.)

- <육의 몸>으로는 무엇을 하느냐?
<육의 것>을 보고 듣고, <육의 생각>만 하며 삽니다.

<육의 몸>으로 ‘영의 것’ 까지 보고 듣고 생각하면
<육신>이 제대로 살 수가 없겠죠!

-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의 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몸>은 ‘영의 생각’ 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의 것’ 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 <영의 몸>을 가지고 ‘영의 생각’ 을 하지 않으면,
 - 그 <영>이 제대로 ‘존재’ 하거나 ‘성장’ 하지도 못하고,
 - <영의 것>을 ‘보고 듣지도’ 못하고,
 - <영의 세계>에 ‘갈 수도’ 없겠죠!
- 그래서 - 하나님도 성령님도 말씀하시기를 <자막2>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영의 몸>이 있으니,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야만

<영의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한다.” 하셨습니다.

- 아~ <영의 몸>이 있으니, ‘영의 생각’ 을 해야
 <영의 것>이 보이고 들리는구나!! (이해했어요?)

<두 번째 말씀>

- 그렇다면, <오늘의 두 번째 말씀>
왜 ‘영의 생각’ 으로 해야 할까?
- 먼저 <육의 몸>을 생각해 봐요.

<육의 몸>이 있는데 ‘육의 생각’을 하지 않고
<육의 것>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산다면, 어떨까요?

<몸은 살아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 : 식물인간>과 같겠죠?

그래서 우리는 <육>을 가지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공부>도 하고, <생활>도 하고,
각종 ‘육의 것들’을 보고 듣고 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야 ‘육이 존재’ 하니까요.

- 그러나 <육>만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혼>도 있고 <영>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의 생각>만 ‘중심’ 하고
<육의 것을 보고 듣는 것>만 ‘중심’ 하고,
<영의 생각, 혼의 생각>은 하지 않고
<영과 혼>에 대해 관심도 없이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의 것>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게 되겠죠?
그러면 <영혼>은 제대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식물혼체, 식물영체>와 같게 됩니다.

<식물인간>은 - 몸을 못 움직일 뿐이지 다 보고 듣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감정을 다 느낍니다.

<영혼>도 그러합니다.

<육>이 ‘육의 생각’ 만 하면,
<영혼>이 제대로 존재하지 못하니 - 영혼은 울어요.

<영혼>이 ‘육’ 보다 뛰어나지만, ‘특징’ 이 있기 때문이죠!
반드시 <육신>이 행해 줘야, <영혼>이 성장하니까!

(▶ 이쯤에서 적절한 위치에 <고욤나무, 참감나무> 비유 들면서
<육>과 <영>에 대해서 더 설명해 준다.)

(▶ 육, 혼, 영의 ‘대장(리더)’에 대해서도 적절한 위치에 넣어 준다.)

- 그래도 어때요?

이 세상에서는 <육>을 중심해서 살아가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노력해도 ‘육의 생각’ 으로 쏠리게 되겠죠?

- 맞아요! <육의 생각>은 ‘육’ 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의 생각>은 자기 ‘혼과 영’ 까지 살릴 수 없습니다.

반면 - <영의 생각>은 ‘육’ 뿐 아니라
<혼과 영>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육’ 도 ‘혼’ 도 ‘영’ 도 존재하게 만들어 줍니다.

<영의 생각>은 ‘가장 높은 생각’ 입니다.

- 그럼 여기서 잠깐! <영의 생각>이 뭐예요?
쉽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생각>

-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 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라고 했습니다.
- 사람들은 대부분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살듯이,
<육신의 생각>은 ‘영의 것’ 이 아니라,
<자기 것> = ‘육의 것’ 만 생각하고 보고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육이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모른 채
 겨우 ‘육신 하나’ 만 존재시키고 끝냅니다.

<육신>을 가지고 - ‘혼과 영’ 을 존재시키고,
 그 육신이 ‘주’ 를 믿고 ‘주의 말씀’ 을 듣고 행함으로
 <자기 영혼>을 구원하고 휴거시켜야 하는데,
 <육>은 ‘육의 생각’ 만 하니,
 결국 <혼과 영>을 ‘사망’ 으로 가게 내버려 두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 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 그러나 <영의 생각>은 -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것>을 보고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육신>을 가지고 ‘육’ 도 존재시키고,
 <자기 영혼>도 존재시키고 성장시키고 휴거시켜
 <육, 혼, 영> ‘모두 성공’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라고 한 것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해야 ‘삼위와 주와 연결’ 되어

<영>은 ‘천국’ 으로 가고 <육신>도 ‘평안’ 하게 살게 됩니다.

- 첫째, 왜 ‘영적’ 으로 해야 돼요?

<영의 몸>이 있으니 ‘영의 생각’ 으로 하라는 것!

둘째, 왜 ‘영의 생각’ 으로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은 ‘가장 높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연결’ 시키기 때문에,

<육>도 평안하게 존재하게 하고,

<영혼>도 존재하게 하며 살린다. (여기까지 이해했지요?)

<세 번째 말씀>

-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세 번째 말씀>

어떻게 해야 ‘영의 생각’ 으로 살 수 있을까?

-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최고 하이라이트>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의 생각’ 으로 살 수 있을까?

<주제>에 ‘힌트’ 가 나와 있습니다. <주제>에 뭐라고 했죠?

<자막5> <자기 육적인 모순>을 잘라야

<자신의 크고 아름다움>을 나타내 기쁘게 한다. (잠시 쉬었다가)

- 여러분이 볼 때,
평소에는 ‘보통’ 으로 보이고, 혹은 ‘하찮게’ 보이고,
혹은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자기 자신도, 부모님도, 형제들도,
섭리사도, 말씀도, 창조 목적도, 휴거도,
이 세상도, 각종 육적인 것들도, 나무도, 하늘도, 각종 만물도...

이런 것들이 <영의 생각>과 <성령의 감동>으로 보고 들으면,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보일까?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 을 가려서
<영이 생각하고 보는 것>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입니다.

- <핵심> <자기 육적인 모순>은 ‘영의 생각’ 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귀한 것’ 이 안 보입니다.

- **왜 <자기모순>이 ‘영의 생각’ 을 가리는지,**
지금부터 ‘나무 비유’ 를 들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 이 부분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해 줄 테니까,
집중해서 잘 보기 바랍니다. **<영상2>**

-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동산>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여기 내가 다니는 길이다.” 하셨습니다.

- 그래서 깨끗하게 <돌>로 ‘길’을 만들어 냈는데요,

이때 성령님께서

<그 옆의 많은 나무들 중>에서 ‘한 나무’를 보여 주시면서
“잔가지가 가리고 있는 저 나무를 봐라.
잔가지들을 제거하자.” 하셨습니다.

- 그래서 그 나무를 보니깐 ‘잔가지들’이 너무 많아서
그 잔가지들이 <나무의 본래 수형>을 가려서 안 보였습니다.

마치 ‘<자기모순>이 <자기>를 가리고 있는 격’이었습니다.

- 선생님은 한 시간 동안 잔가지를 다 쳐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의 정말 멋진 큰 가지>가 ‘네 개’나 보였습니다.

잔가지를 치고 그 나무를 다시 보니,

보는 사람들마다 “와~~ 정말 <대결작술>이구나.” 감탄했고,
<기도동산에서 최고로 멋진 소나무>라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 이 나무가 <기도동산에서 대결작품 중의 하나>인지,
그동안 선생님도 수백 번을 봐도 몰랐고, 누구도 몰랐습니다.

최근에 깊이 기도하면서 더욱 ‘영적’ 으로 사니 -
성령님은 ‘영의 생각’ 으로 보고 듣고 행하게 하였고,
행하고 나니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 이 나무는 <기도동산 개선문 옆>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옮겨 심은 가브리엘>에서
15m 떨어진 양달쪽에 있습니다.
- 이 나무는 땅에서부터 3m 높이로 쪽 뻗어 가면서
<한 아름씩 되는 네 개의 큰 가지>가 ‘한 몸’ 이 된 나무입니다.

3m 위부터는 <네 개의 큰 가지>가 동서남북으로 뻗어서
<수형>이 아름답게 잘 잡혔습니다.

직접 보면, 훨씬 더 멋있습니다.

- 이 나무는 <전망대 분재술>보다도 작품성이 있고,
<잔디밭 위의 Y자 소나무>보다도 작품성이 있고,
<기도동산의 기도 표적술>보다도 작품성이 있고,
<기도동산 개선문 옆에, 수형이 최고로 좋다는 소나무>보다도
더 작품성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끝>

<잠시 쉬었다가>

- <이 나무의 사진>을, 한 번 더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 이 이 나무의 <한 가지 특징>을 더 말하자면,

<위>는 ‘붉은 홍송’ 이고, <아래>는 ‘검은 흙송’ 입니다.

- 그리고 <가장 큰 특징>! ‘네 개의 큰 가지’ 가 확실히 보이네요!
여기서 퀴즈! 선생님께서 <이 나무의 이름>을 지으셨죠? (브이로그)
힌트!! ‘가지가 네 개인데, 한 나무에 일체 되어 있다.’

<사위일체술>

첫째 - 하나님, 성령님, 성자 = 3위 / 주+우리들 : 4위
<삼위와 우리가 일체 됨>을 상징!

둘째 - <동서남북으로 쪽 뻗은 네 개의 큰 가지>는
동서남북으로 웅장하고 조화롭게 구상된 자연성전을 뜻함.

셋째 - <모범으로 신앙을 하자는 상징술>이기도 함.

넷째 - <성령님>이 ‘선생님’ 에게 보여 주시며,
기어이 실천하게 하고 나서 주신 말씀 : <성령술>이라고도 함.

- 그럼 <이 나무가 가진 사연>도 있나요? 그럼요!!

* 이해가 잘되게, 다시 <영상>을 보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추가 영상>

- 1993년 4월 26일 오전 9시 - 이 날은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실업 축구팀 전국 리그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섭리사에도 ‘실업 축구팀’ 이 있어서
선생님도 참여하기 위해 서울로 가려고 했습니다.

- 그래서 선생님은 전망대에서 기도하고,
 <자연성전 전망대의 능선>을 타고서
 <앞산이 제일 잘 보이는 위치>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어지러워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 그 자리가 바로 <사위일체술>이 있는 자리입니다!!
- 하나님은 여기서 <현재 야심작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 주시며,
 “이렇게 하여라.” 하고, 영적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위일체술>을 다른 이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자연성전의 구상을 받은 장소>에 주신
 <표상술>입니다. <끝>

- <정리>
 삼위와 주+우리 일체라서 = <사위일체술>
 하나님께 자연성전의 구상을 받은 장소에 주셔서 = <표상술>

- 그러면, <사위일체술이 있는 위치>를
 가장 쉽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사진> 생가터 기념관 뒤 - 여기서 보면, 앞산 야심작이 딱 보임.

- 하나 더!! (★오늘 말씀의 최고 최고 핵심)

이 소나무같이 섭리인들도 모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갖춰져 있다.
그런데 <자기 육적인 모순>이 ‘자기’를 가리고 있다.

이 모순들을 - 가지치기 하듯 자르면,
<자신>이 ‘영육으로 웅장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다.

* 이 나무를 통해 <성령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래요? 다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3>

•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린 것을 잘라내니,
<기도동산의 걸작술>로 확인되어 시인하지 않나.

섭리사 모든 사람들은 ‘이 나무’와 같다.

이와 같이 <자기 육의 생각>이 <자기 영의 생각>을 가리면,
자기가 <큰 작품>인데도 안 보인다.

그러므로 육의 생각, 이성과 세상 향락,
세상에 속한 그릇된 것들, 미디어, 세상 생각,
미움, 다툼, 의심, 불평불만, 태만함, 게으름을 다 잘라내라.

그래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생각하고,
<영의 생각>으로 보고 듣고 행하게 된다.

그제야 <자기>가 ‘큰 작품술’ 같이 귀히 보인다.

그러니 <영적인 것을 좇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고,
<영적>으로 행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영의 세계>가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된다.

저마다 <자기 육의 모순>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육의 생각>을 잘라내야
<육>도 <혼>도 <영>도 빛나게 되고,
<자신>이 ‘큰 결작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 이 말씀을 모두에게 전하여
깨닫게 하고 행하게 하자.” 하셨습니다. <끝>

<말씀 마무리>

*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해야 함. 그리고 당부)

• 전 세계 SS들!!

하나님과 성령과 주님께서
여러분의 <육과 영>을 이 소나무처럼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런데 <자기 육적인 모순>이 ‘빛나는 자신’을 가리고 있대요.

<자기 육적인 모순>을 하나하나 없애다 보면,
결국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섭리사의 가치>를 발견하고,

〈창조 목적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빛나는 자신’을 찾고,
너도, 나도, 삼위도, 주도 보면서 감탄하고 기뻐합니다.

- 여러분은 다들 하고 있죠? 이미 시작했죠?

〈슈스에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변화되고 있죠?

(*여기서부터 <슈스에배 피드백, 편지를 참고해서 마무리)

노담, 노술, 노이동, 노음, 노미디어.

웹툰, 음란물, 미디어, 아이돌을 끊은 SS들의 사례.

〈유튜브 자리〉를 ‘팜’으로 바꾼 사례 등등

실제로 행하고 있는 SS들의 사례를 말해 주면서 마무리

- 〈팜스테이션〉을 통해 ‘영적인 것들’ 보고!!

〈가장 영적인 성령과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모두 함께 21일 특별기도〉에 동참하기도 하고!!

특수부에, 10대 교사에, 말씀 듣고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다.

없어지면 또 뒤집어지기 위해 : 오늘도 또 왔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 육적인 모순〉을 하나하나 잘라내다 보면,

〈자기를 가리고 있던 것들〉이 없어지면서 - 오늘 주제처럼

〈아름답고 위대한 자기 육과 혼과 영〉을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 * <오늘 말씀의 핵심>을 한 번 더 영상을 통해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영상4>

- 첫째, 〈영적〉으로 해라. (왜?)

〈영의 몸〉이 있으니 ‘영적’으로 해라.

- 둘째, <영의 생각>으로 해라. (왜?)

<영의 생각>은 ‘최고 높은 생각’ 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생각하게 하고,
그 생각만이 ‘육, 혼, 영’ 을 다 살린다.

- 셋째, (오늘 말씀의 최고 핵심)

<자기 육적인 모순>을 잘라라.
그래야 ‘자기가 크고 아름답다는 것’ 을 알게 된다.

- 어떻게 <육 생각의 가지들>을 자를까?
<영의 생각, 하나님과 주가 주신 생각>으로 자르자!

그러면, <사위일체술>처럼
<자기>가 ‘걸작인생’ 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끝>

누구든지 <자기 육적인 모순>을 잘라야 된다.

Everyone must get rid
of <the faults in your physical life>

그러면, <자신의 크고 아름다움>을 나타내 기쁘게 한다.

Then! 'your beauty and greatness'
can shine through and be pleasing